

월요논단



현 해 남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교수

언택트 시대에 힘들수록 고객에 집중

넙는 학생이 물리던 대면 강의를 다 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강의 내용을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얼굴을 다 들고 분장도 하고 카메라 앞에 서는 새로운 강의 풍속도가 될 것이다. 몇 달 사이에 반드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는다는 기존 개념도 바뀌었다. 동영상 강의와 라이브 강의가 학교 수업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교재를 연구하고 강의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글 미트, 줌, 아프리카 TV, 네이버 밴드 동영상, 라이브 강의를 얼마나 능숙하게 잘 다루는지가 유능한 교사와 교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시작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동영상, 라이브 강의를 하지 못하면 스마트폰 시대에 공중전화를 찾아 헤매는 디지털 문맹자가 되고 만다. 그래서 학생이 고객이라는 생각을 하는 교사, 교수들은 동영상, 라이브 강의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한다. 필자도 전공

공부보다 라이브 동영상 강의 속달에 더 초점을 맞춘다.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의 농업인 교육도 변했다. 처음에는 동영상 강의 운영이 어색했지만, 점점 더 동영상 강의가 많아진다. 라이브 강의도 인기가 있다. 대면 강의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 들을 수 없다. 동영상 강의는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에 소비자로서 가는 유통경로도 변할 것이다. 농협이 조합원이 계통 출하한 농산물을 도매시장으로 보내면 되는 시대도 과거가 될 것이다. 복잡한 단계의 유통경로, 불합리한 유통경비와 도매시장 마진, 하역 경비, 경매 비리 등 농협의 고객인 조합원들의 불만도 많다. 농산물 소비자인 고객이 변하기 시작했으니 유통 방법도 변해야 한다. 감귤을 선과하고 도매시장에 보내는 단순 작업의 농협 계통출하는 변

해야 한다. 농협의 고객인 조합원과 농산물 소비자 고객을 직접 연결하는 언택트 마케팅을 개발해야 한다. 선과장이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언택트 소비문화를 대비해야 한다. 농업인도 고객에 집중해야 한다. 고객의 입맛이 까다로워지기 시작했다. 옷을 구입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시키고 환불을 요구한다. 농산물도 그럴 날이 머지않았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수록 고객에 집중해야 한다. 제주 농산물이 고객에 집중하는 지름길은 품질이다. 남들이 감귤 10kg 한 상자에 3만원 남짓 받을 때 10만원 넘게 받는 온라인 직접 판매 감귤 농가가 많다. 고객에 집중한 덕분이다. 모든 상품이 언택트 소비문화로 변하고 있다. 제주의 농산물 상품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변해야 살아남는다.

지금처럼 코로나 언택트 소비문화로 어려울수록 고객에 집중해야 살아남는다. 거리 두기로 가장 크게 변한 것이 고객이기 때문이다. 대형 마트에 가서 물건을 만져보고 구매하던 고객이 모니터, 스마트폰을 보며 주문한다. 오프라인은 이미 구시대가 되고 모든 게 언택트로 주문이 이뤄진다. 롯데마트처럼 공룡 쇼펜센터도 바로배송으로 정책을 바꿨다. 대학 강의도 변했다. 이미 언택트 비대면 동영상 강의가 1년 가까이 진행됐다. 인기 교수 강의에 백명이

열린마당

포스트 코로나와 청렴 백신



강 정 인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사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두루뭉술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이미 정부와 의료를 믿고, '나'가 아닌 '우리'를 생각했을 때 발휘되는 연대와 포용의 정신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처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는 곧 사회의 위기 대처 능력으로 직결된다. 공직자가 국민으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부패(Corruption)란 라틴어 'Cor(함께)'와 'Rupt(파멸하다)'의 합성어로 같이 파멸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이 나 하나 썸이아 하는 생각으로 서로를 마주하는 순간, 부정부패라는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가 혼란기에 국민과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질병이 되는 것이다. 청렴이라는 백신을 공직사회에 지속해서 투여할 때, 비로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건강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 곳곳의 정치, 문화, 환경 등 모든 분야가 크게 변화해 어떤 이들은 BC와 AD를 코로나 이전과 재앙 이후로 말할 정도다. 국내에서도 고위험시설의 영업 중단 명령, 이동 통제 등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오랜 시간 닫힌 삶을 사는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렇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국민 결의로 다가서는 공직자의 자세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국민적 연대는 공직사회에

뉴스-in

코로나 시대 새로운 유형의 취업 박람회

편의시설 불편사항 최소화
○...추석연휴기간(9월30일~10월4일) 시행된 양지공원 추모객 총량 사전예약제가 추모객 분산 등 긍정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총량 사전예약제 운영으로 추석 당일 추모객 집중현상과 양지공원 내 차량 정체 및 주차장 등 편의시설에 대한 불편사항이 최소화. 이에 양지공원은 추석 당일 집중했던 추모객들이 분산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설날과 윤달 기간 등에도 총량 사전예약제를 시행해나갈 방침. 오은지기자

가파르게 늘어나던 전기차 수요는 최근 가격 상승, 보조금 축소, 충전소 인상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 한국은행 제주본부 관계자는 "전기차 수요 확대 노력은 저탄소 경제 이행을 촉진하고 산업구조의 다양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고대로그자

전기차 보급 확대 노력 제안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전기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해 주목. 제주본부는 '2020년 9월호 지역경제보고서'를 통해 2018년까지

온택트 취업 박람회 열기

○...제주대가 최근에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개최한 '온택트 2020 청년취업 잡-아라(JOB-ARA) 페스티벌'이 사전 신청 1200건에 유튜브 조회수 약 1600회 등 높은 호응 속에 마무리. 이번 행사엔 제주 기업 19곳이 참여했고 청년구직자들이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무대행사로 영상콘텐츠도 진행. 제주대 측은 "코로나 시대 청년구직자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취업 박람회가 됐다"고 자평. 진선희기자

사설

소비심리 얼어붙는데 대책은 없으니

제주경제가 여전히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나아지는가 싶으면 또 곤두박질치기 일쏘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언제 기지개를 펼지 전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제주지역 소비심리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가 발표한 최근 제주지역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확 떨어졌습니다. 제주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9월 소비자심리지수는 78.9로 전월 대비 8.6p 하락했습니다.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8.8p 하락한 79.4입니다. 다른 지방에 비해 제주지역의 소비심리가 더 얼어붙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1월 101.0로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100을 넘었습니다. 코

로나19가 발생한 2월에는 92.3으로 떨어지더니 3월에 70.2로 급락하면서 2018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4월 78.8, 5월 78.5, 6월 79.6, 7월 84.7, 8월 87.5로 위축했던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8월 중순부터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소비심리가 꺾여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 큰 일입니다. 반짝 호황을 맞는 일부 관광업종을 제외하면 심각합니다. 코로나19가 호전되기를 기다리는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주도의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의회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을 촉구하는데도 마이동풍입니다. 제주도는 오히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 지출을 줄이고 있어 걱정됩니다.

악화일로 제주 공기업 경영, 특단대책을

제주 공기업들의 경영성적이 악화일로입니다. 심각한 경영악화를 겪는 제주관광공사는 조기 특단의 대책이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지방공기업이 경영성과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출범의도와 거리 먼 현실을 맞는 겁니다. 최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전국 249개 지방공기업의 2019년도 경영평가결과를 보면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도의 광역하수도부분 등은 경영악화로 저평가를 면치 못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2018년 다등급에서 이번엔 라등급으로 추락했습니다. 2017년 나등급 이후 매년 떨어진 겁니다. 전국 7개 관광공사중 가장 낮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무리하게 추진한 시내면세점 사업의 300억원 가까운 손실로 폐점한 게 주 원인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도 그간 3년 연속 나등급에서 이번엔 다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제주도의 광역하수도부분 평가는

최하위인 마등급입니다. 일부 지방공기업들의 경영평가 '낙제점' 원인은 다양합니다. 경영환경의 변화, 무분별한 사업확장, 전문성 및 경영능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관광공사의 경영 실패는 '황금알 낳는 거위'라는 면세사업에만 눈을 돌린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보여줍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사업부진, 잦은 사장교체에 내부 갈등 등 내우외환의 결과로 해석됩니다. 제주도 광역하수도 평가 최하위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상 작년 19.9%로, 전국평균 48.8%에 이번엔 라등급으로 추락했습니다. 그간 하수도 공기업 경영 합리화 방안이 소홀해 온 책임도 큼니다. 경영위기가 '원인없는 결과'로 오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과도한 재정지출·정실인사예다 방만경영 무능경영 무책임경영의 책임이 지적돼야 합니다. 관리감독기관인 제주도와 경영진 모두 특단의 대책에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 고
강봉현 어머니 삭병최씨 희선(향년 91세)께서 서기 2020년 10월 2일 17시 18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10월 5일(월요일)
발인일시: 2020년 10월 6일(화요일) 오전 8시 5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10빈소
장 지: 양지공원

부 고
고명식(남안수산(영) 대표) 아버지 제주고공 우석(국가유공자·향년 88세)께서 서기 2020년 9월 29일 18시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10월 5일(월요일)
발인일시: 2020년 10월 6일(화요일) 오전 6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장 지: 양지공원

부 고
오석형 아버지 군위오씨 창주(前 서귀포시 재향군인회장·향년 90세)께서 서기 2020년 10월 2일 오후 2시 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10월 5일(월요일)
발인일시: 2020년 10월 6일(화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서귀포 한빛장례식장
장 지: 돈내코 가족묘지

부 고
양행구(前 남군의회 의장) 어머니 제주고씨 영희(향년 90세)께서 서기 2020년 10월 1일 06시 24분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10월 5일(월요일)
발인일시: 2020년 10월 6일(화요일) 오전 8시
발인장소: 화순리 문화회관
장 지: 양지공원→안덕면 상정리 가족묘역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진주정공 승민(향년 41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저변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0월 5일
부인 유경심
아들 정동원
민준
준혁
부정명옥 형 정승훈
모임영부 누나 정윤선
정은숙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명: 방 김경하(1959. 6. 9생)
최후주소: 제주시 동화로길 10, 414동 504호(화북일동, 화북4리파트)
상기자는 2020년 6월 29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0년 9월 25일 제주지방법원 2020년단535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회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안락처: 제주시 동화로길 10, 414동 504호(화북일동, 화북4리파트)
충남영수인 법무사 문병삼
2020년 10월 5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좌익식, 김영희, 김미선